

2013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3	2	3	3	1	4	3	5	1
6	4	7	3	8	3	9	5	10	2
11	2	12	1	13	3	14	3	15	5
16	5	17	5	18	1	19	3	20	5
21	4	22	1	23	2	24	1	25	4
26	2	27	4	28	1	29	5	30	1
31	4	32	2	33	2	34	5	35	2
36	5	37	2	38	4	39	5	40	3
41	5	42	5	43	3	44	3	45	3

[화 법]

1. [출제의도] 발표 계획과 발표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하기

생태발자국을 개발한 전문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했지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지는 않았고, 둘째 문단에서 국제 생태발자국 네트워크가 웹 사이트에 발표한 자료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지는 않았다.

① 발표 전체 내용상 1~3문단은 정보 전달, 마지막 문단은 생태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학생들의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다. ② 도입 부분 중 '어려운, 생태발자국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에서 생소한 용어를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둘째, 셋째 문단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⑤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 [출제의도] 발표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발표 내용 중에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의 생태발자국이 웹 사이트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 브라질의 생태발자국은 제시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생태발자국이 어느 정도인지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할 내용에 해당한다.

①, ②, ④, ⑤번은 발표 내용 중에 이미 언급한 것들이기 때문에 보완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대화에서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제시된 장면은 어색해진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이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지원이가 민지의 싸늘한 반응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한다고 말하자,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용기를 주고 있다. ② 유머와 재담이 대화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어서 가 봐!'라는 명령문은 나타나 있지만 청유형의 제안은 대화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속담이나 격언 등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지원이의 말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4. [출제의도] 토의 과정 분석하기

'영민'이 '은영'의 제안을 비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현수'는 발언 끝에 질문을 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② '은영'은 단합 대화 때 문화 상품권을 사용하자는 현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저녁 식사를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수지'는 문화 상품권으로 학급 문고 구매를 제안하는 '영

민'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안대로 실시했을 경우 예상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⑤ '현수'와 '은영'은 '영민'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며 협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출제의도] 토의 진행자의 역할 평가하기

이 토의에서는 참여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자가 갈등이나 충돌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 학급회장의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토의를 시작하면서 문화 상품권 사용과 관련된 토의 안건을 규정하고 있다. ④ 토의의 마지막에 문화 상품권으로 학급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정리하며 다음 회의의 안건으로 구입 도서 목록 선정을 제시하고 있다. ⑤ 학급회장은 '수지'의 발언 다음에 결론을 얻는 방향으로 토의를 유도하고 있다.

[작 문]

6. [출제의도] 자료를 파악하고 활용 방안 구상하기

(가)는 기업별 종사자의 업무 숙련도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이다. (나)는 사회적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다)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나)에는 종사자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체 인력이 부족하여 교육 훈련이 어렵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 관리와 기획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낮은 업무 숙련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서 종사자들의 교육 훈련이 어려운 주요 이유로 대체 인력, 경비, 적절한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위한 역량을 키워 가야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교육 기반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술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의 교육 훈련 여건 마련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부분과 (나)의 인력과 경비, 프로그램 부족으로 교육 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실태를 종합해 볼 때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습니다.'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에, '어리고 작은 나무가 강하고 큰 나무로'는 비유적 표현과 대조적 표현에, '버팀목'은 비유적 표현에 해당한다.

①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잘못 제시되어 있으며, 비유적 표현은 있으나 대조적 표현은 없다. ②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나타나 있고, 대조적 표현은 있으나 비유적 표현은 없다. ④ 비유와 대조가 나타나 있지만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잘못 제시되어 있다. ⑤ 사회적 기업의 목적과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었으나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개요 수정 보완하기

'III-나'는 'II-나'의 활성화 방안에 해당하므로 'II'의 하위 항목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II-가'의 '시설 부족'은 의미가 포괄적이므로 '고객 편의 시설 부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III'에는 'II-다'와 관련된 방안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고려한 지역 특화 상품 개발'을 추가한다. ④ 'III-다'는 전통 시장 활성화 방

안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⑤ 'IV'는 논지의 흐름에 맞게 '전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로 수정한다.

9. [출제의도] 글쓰기 방법 파악하기

ㄱ. 교실이 지저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 개선과 환경 미화를 제시하고 있다. ㄴ.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을 사용하여 사소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ㄷ. 깨끗이 유리창 이문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글쓰기가 활용한 방법은 ㄱ, ㄴ, ㄷ이다.

ㄴ. 교실 환경이 지저분하다는 문제 상황에 대해 대조적인 의견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10. [출제의도] 교쳐 쓰기

'즉'은 앞 문장의 내용을 받아 설명하는 기능을 하므로 ㉠에 '즉'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글의 흐름을 고려하면 먼저 교실의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특별히 교실 뒤편의 쓰레기통 주변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문장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깨끗한 교실 환경 만들기'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삭제한다. ④ '쓰레기통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것'과 '방치했다'는 서로 호응하지 않으므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고쳐야 한다. ⑤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간이다.'의 주어가 없으므로 '교실'을 추가해서 문장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

[문 법]

11. [출제의도] 음운의 탈락 이해하기

⑥의 '낱아'는 [나아]로 발음되지만, 'ㅎ'이 발음상 탈락되는 현상이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① ㉠의 '도니'를 보면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된다. ③ ㉡의 '썩'을 보면 어간의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된다. ④ ㉢의 '가'를 보면 동일 음운 'ㄱ'이 연결될 경우 하나가 탈락된다. ⑤ ㉣과 ㉤는 자음의 탈락, ㉠과 ㉡는 모음의 탈락이다.

12. [출제의도] 단어 형성법에 따른 단어 분류하기

'하늘'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 '논밭'은 '논'과 '밭', '뉴프루다'는 '눉다'와 '푸르다'가 결합한 합성어, '지우개'는 접미사 '-개'가, '헛수고'는 접두사 '헛-'이 어근과 결합한 파생어이다.

13.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학생 : 남학생'은 '학생'이 의미상 '남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하 관계이다.

①~⑤의 '웃 : 의복', '서점 : 책방', '걱정 : 근심', '완하다 : 밝다', '분명하다 : 명료하다'는 각각 두 단어가 맺는 의미 관계가 비슷하므로 유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①, ②, ④, ⑤의 '밤 : 낮', '기쁨 : 슬픔', '오르다 : 내리다', '습기다 : 드러내다'는 각각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고 있으므로 반의 관계를 맺고 있다.

14. [출제의도] 서술어의 자릿수 파악하기

‘누나가 새 책을 샀다.’라는 문장은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관형어 ‘새’는 서술어 ‘샀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다. 따라서 ㄷ의 서술어 ‘샀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① ㄱ의 ‘되었다’는 주어와 보어를 모두 필요로 한다. 따라서 ‘되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ㄴ의 ‘같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모두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같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ㄹ의 ‘부른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부른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ㅁ의 ‘붙였다’는 주어와 부사어, 목적어를 모두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붙였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15. [출제의도] 부정 표현 이해하기

㉠의 긴 부정문과 ㉡의 짧은 부정문은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① ㉠, ㉡, ㉢, ㉣은 ‘못’과 ‘안’을 사용하여 만든 짧은 부정문이다. ② ㉤에서 ‘안’은 동사 앞에서 ‘하고 싶지 않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③ ㉥에서 ‘못’은 동사 앞에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뜻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④ ㉦은 ‘못하다’를 사용하여 만든 긴 부정문이다.

[인 문]

[16~18] <출전> 턴킨, 「상식의 배반」

16. [출제의도] 서술 방식 파악하기

제시된 지문은 1문단 - 논제 제시, 2문단 - 논지의 정의에 대한 주장, 3문단 - 폴스의 정의에 대한 주장, 4문단 - 논지의 주장과 폴스의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두 철학자의 견해가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한 글이 아니다. ② 상반된 견해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나 절충적 대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논지와 폴스의 견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④ 논지와 폴스의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두 견해가 다양한 이론으로 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17. [출제의도] 비판의 타당성 파악하기

3문단에서 폴스는 출생, 신체, 지위 등에 우연적 요소가 개입된다고 보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⑤와 같은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① 폴스는 다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폴스는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 문제를 사회 구성원의 합의된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④ 폴스의 정의로운 사회의 세 가지 조건에 인간의 감정적 차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18. [출제의도]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2문단에서 논지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람들의 자발적 기부는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기부하는 행동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2문단에 논지는 국가의 간섭에 의한 재분배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다. ③ 3문단에서 폴스는 자연적·사회적 불평등을 복지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3문단의 폴스의 마지막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4문단에서 논지와 폴스는 자유 경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사 회]

[19~21] <출전> 박유연, 「경제기사 이보다 쉬울 수 없다」

1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확인하기

‘경기순환’에 의한 판독법은 장기성장추세를 활용하지 않는다.

①은 첫 문단에 ②는 둘째 문단에 나와 있고, ④는 4문단의 끝에, ⑤는 둘째 문단에 나와 있다.

20.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는 GDP성장률이 양(+)이면 확장기로, 음(-)이면 수축기로 본다. 그리고 ㉣는 성장률이 장기성장추세보다 크면 확장기, 작으면 수축기로 본다. 한편 ㉤는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으면 확장기, 감소하고 있으면 수축기로 본다. 따라서 ㉢는 성장률이 0보다 크므로 ㉤의 관점에서는 확장기이고, 성장률이 장기성장추세보다 작으므로 ㉤의 관점에서는 수축기이다.

① ㉣는 성장률이 0보다 작으므로 ㉤의 관점에서는 수축기지만,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의 관점에서는 확장기이다. ② ㉢는 성장률이 0보다 크므로 ㉤의 관점에서는 확장기이고, 성장률이 장기성장추세보다 크므로 ㉤의 관점에서도 확장기이다. ③ ㉣는 성장률이 장기성장추세보다 크므로 ㉤의 관점에서는 확장기이고,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의 관점에서는 수축기이다. ④ ㉣는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장기성장추세보다 작으므로 ㉤와 ㉥ 모두 수축기로 본다.

21.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은 확장기이고, ㉡은 수축기이다. 확장기에는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여 실적이 좋아지면서 고용이 확대되고 임금이 상승하므로 기업의 이윤과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소득 증가에 따라 기업과 가계도 투자와 소비를 늘리게 된다. 한편, 정부는 경기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물가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정부 지출을 줄이는 등의 정책을 펴게 된다. 반면 수축기에는 투자, 생산, 소득이 모두 위축되므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 시기에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했을 것이다.

㉣의 시기에 기업의 생산은 감소하고 가계의 소비도 감소했을 것이므로 ①과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③ 정부가 물가 상승의 조짐을 우려한 것은 ㉡의 시기가 아니라 ㉢의 시기이다. 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을 시행한 것은 ㉢이 아니라 ㉣의 시기이다.

[예 술]

[22~24] <출전> 아래나스, 「명하는 왜? 유명할까?」

22. [출제의도] 내용 확인하기

이 글은 인상과 이전의 회화의 경향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그림을 그린 인상과 화가들의 회화의 특징을 설명한 후 인상파의 미술사적 의미를 밝히고 있으나 인상파 화가들이 인상파라는 명칭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② 셋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인상파 화가들이 대상의 색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 수 있다. ③ 첫 문단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통해 인상파 그림의 미술사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⑤ 첫 문단의 ‘비평가 루이 르루아는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모네의 작품명에서 명칭을 따와 모네와 그의 동료들을 인상파라고 불렀다.’라는 내용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23. [출제의도] 중심 내용을 비교하여 이해하기

마지막 문단의 ‘인상파 그림은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첫 문단의 ‘배경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사건이나 인물, 사상 등을 주제로 하여 그림을 그렸다.’는 내용을 통해 이전의 화가들과 인상파 화가들의 회화에 대한 입장 차이를 알 수 있다.

① 셋째 문단의 ‘사과의 빨간색이나 나뭇잎의 초록색 같은 대상의 고유한 색은 부정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③ 첫 문단의 ‘상징적 대상을 잘 짜인 구도 속에 배치하였다고’라는 내용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④ 셋째 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인상파 화가들은 자연광을 이루는 기본색과 무채색만으로 그림을 채색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첫 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정교한 채색’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인상파 이전의 화가들임을 알 수 있다.

24.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적용하기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 설명된 인상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통해서 볼 때 그림 속의 인물들은 모네의 의도에 따라 배치되었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⑤의 내용은 셋째 문단에 기술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그리는 방법과 이에 따른 회화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 학]

[25~28] <출전> 송진용 외, 「은 몸이 물리 천지」

25.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1종, 2종, 3종 지레의 종류와 작용 원리에 대해 지레, 병따개, 핀셋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3종 지레의 원리로 움직이는 인체의 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도구와 인체를 중심으로 지레의 종류와 작용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표제는 ‘지레의 종류와 작용 원리’, 부제는 ‘도구와 인체를 중심으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지레의 원리가 적용된 병따개, 핀셋 등의 예시가 제시되었으나 건축 분야와 관련된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② 이 글에는 지레의 종류와 원리만 언급되었고, 지레가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그 과정은 드러나지 않다. ③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지레와 인체의 관계로 볼 수 없다. ⑤ 지레가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도구라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3종 지레는 힘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레이다.

2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보기>에 제시된 그림은 팔로 야구공을 들어 올리는 인체의 모형으로서 ㉠는 받침점, ㉡는 힘점, ㉢는 작용점으로 3종 지레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종 지레는 ⑥에 힘을 가하여 ㉠을 움직이므로 받침점인 ㉠에 힘을 가해서 ㉠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 ① ㉠은 받침점이므로 ㉠을 중심으로 ⑥에 힘을 가하면 ㉠이 움직인다. ③ ⑥는 힘점으로 팔이 움직일 때 힘의 방향이 위쪽으로 향하고, ㉠은 작용점으로 팔이 위쪽으로 움직일 때 같이 위쪽으로 움직이므로 ⑥와 ㉠은 힘의 방향이 같다. ④ 인체의 팔은 3종 지레의 원리로 움직이므로 받침점과 힘점 사이의 거리가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의 거리보다 짧다. 따라서 힘점에 들어가는 힘은 작용점에 미치는 힘보다 크다. ⑤ 3종 지레는 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거리 면에서는 효율적이므로 힘점인 ⑥가 움직인 거리보다 작용점인 ㉠이 움직인 거리가 더 길다.

2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가)는 1종 지레의 원리가 적용된 '전지 가위', (나)는 2종 지레의 원리가 적용된 '작두'이다. (가)의 손잡이가 움직이는 방향과 날이 움직이는 방향은 서로 반대이므로 힘의 방향 역시 반대이다. ① (가)는 1종 지레이므로 '작용점-받침점-힘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받침점이 작용점과 힘점 사이에 놓여 있다. ② (가)는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보다 길수록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으므로 나뭇가지를 자를 때 손잡이 끝 쪽을 잡을수록 힘이 덜 들게 된다. ③ (나)는 2종 지레이므로 '받침점-작용점-힘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작용점이 받침점과 힘점 사이에 놓여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보다 긴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작은 힘을 들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28.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의미 파악하기

지레는 가운데에 어떤 점이 놓이느냐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므로, '사물을 공통되는 성질에 따라 종류별로 가르다'는 의미를 지닌 '분류(分類)'가 들어간 '분류(分類)된다'로 바꿔 쓸 수 있다. ② '분석(分析)된다'의 '분석(分析)'은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이 그 요소나 성분·측면 등을 밝힌다는 의미이다. ③ '대체(代替)된다'의 '대체(代替)'는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④ '정의(定義)된다'의 '정의(定義)'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⑤ '판단(判斷)된다'의 '판단(判斷)'은 사물을 인식해서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독서]

29. [출제의도] 두 학생의 읽기 전략을 비교하여 평가하기

'윤지'는 책을 읽다가 '자포니즘'이라는 낯선 개념을 보고, 책을 계속 읽다가 문맥을 통해 잘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다시 이해하게 된다. '윤지'는 이와 같이 독서 활동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고 있으므로 '윤지'와 '준수' 모두 이에 해당한다. ① '준수'가 좋아하는 화가에 대한 책을 선택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윤지'가 책을 읽기 전에 미술 시간에 배운 고호의 작품 세계를 떠올려 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준수'가 목차를 통해 책의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윤지'가 발표 과제에 맞춰 특정 부분을 선별하여 독서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질문하기 전략 적용하기

고호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삶에 대한 공감을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그래서 고호의 그림에는 농부를 소재로 한 그림이 많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⑤는 '준수'의 사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현대시]

[31~33] <출전>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신경림, 「동해바다」

31. [출제의도] 표현상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어둠'은 '부정적인 현실', '아침'은 '긍정적인 미래'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정적인 현재의 모습을 벗어나 새로운 자아로 나아가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나)의 '돌'은 화자가 부끄러워 버리고 싶은 '용졸한 모습', '동해바다'는 화자가 본받고 싶은 '너그럽고 관대한 모습'으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너그럽게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① (가), (나) 모두 담담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어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서는 명사로 끝나는 시행을 찾을 수 없다. ③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⑤ (가), (나)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2. [출제의도] 외제적 감상하기

'홀로 침전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을 의미하므로 고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① 일제강점기에 쓴 작품이라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육절방은 남의 나라'는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자아 성장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에서는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읽어 낼 수 있다. ④ 화자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시대처럼 을 아침'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최초의 약속'은 두 자아가 화해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3. [출제의도] 내제적 감상하기

'티끌'은 남의 잘못이 아주 작았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시어이다. ① '날'은 친구의 작은 잘못을 크게 여겨 원수보다 더 미워하게 된 날이므로 부끄러운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날을 의미한다. ③ '돌'은 생각이 좁고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화자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다. ④ 화자는 넓은 '동해바다'를 보면서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되고자 하므로 '동해바다'는 화자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체질'은 화자의 자신에 대한 엄격한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현대소설]

[34~37] <출전> 문순태, 「늬우신 어머니의 향기」

34.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작품 속 인물인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① 이 작품은 1인칭 서술자인 '나'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기 어렵다. ② 이 작품에는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

35.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및 의미 파악하기

'어머니의 냄새가 내 몸의 핏줄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통해 ㉠은 '나'의 내면에서 솟아오른 냄새임을 알 수 있다. ① ㉠은 '나'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냄새로, '나'와 아내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③ ㉠은 '나'와 아내가 제거하려는 냄새가 아니다. ④ ㉠과 ㉡은 '나'와 아내의 행동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⑤ ㉡은 '나'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현재의 냄새이다.

36. [출제의도] 서사 전개 과정 파악하기

[A]에서는 어머니 냄새의 근원지가 발견되고, [B]에서는 어머니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C]에서 [A]와 [B]에 드러난 중심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노망나신 거 아녜요?"에서 어머니에 대한 아내의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② [B]에서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나'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으로 볼 수 있다. ③ [A]에서 '나'는 '보따리'로 인해 과거를 성찰하게 되고, 이로 인해 [C]에서 '나'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줄어들게 된다. ④ [B]에서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동생의 전화는 [C]에서의 '나'가 집을 나와 고향으로 향하도록 한다.

37.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가 동생에게 어머니의 냄새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이지 '나'와 동생의 과거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①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와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된다. ③ '나'가 어머니의 냄새를 역경다고 느끼며 제거하려 하다가 보따리를 발견하게 되고, 어머니가 사라지게 되자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고향으로 향하는 행위는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나'는 보따리와 관련된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지만, 아내는 보따리와 관련된 어머니와의 추억이 없다. 때문에 아내는 냄새 나는 보따리를 버리자고 주장하게 된다. ⑤ '나'가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서 '어머니의 향기가 사무치게 그리웠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나'는 어머니를 재인식하고 어머니의 삶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현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전시가]

[38~40] <출전> 정철, 「사미인곡」

38.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설의적 표현을 나타내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②, ③의 표현은 뒷글에서 찾을 수 없다. ⑤ 하강의 심상은 보이지만 반복적으로 쓰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으며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39.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보기>에서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는 존재'라고 했다. '현승과 눈물'은 지상 세계에서 임을 그리워하며 지내는 화자의 슬픔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상'인 임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보기>에서 시적 화자는 천상계에서 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은 그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적각'과 '그리워하는 존재'라는 말에서 ㉡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③ <보기>의 천상계와 지상계가 ㉢에서 '광한전'과 '하계'와 연결된다. ④ <보기>의 '임이 없는 결핍의 공간'은 ㉣과 연결 지어 감상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문맥을 통해 시어 이해하기

'임이신가 아니신가'를 통해 '달'이 임을 떠오르게 하는 자연물임을 알 수 있고, '임 계신데 보내고자'를 통해 '매화'가 화자의 임에 대한 그리움과 정성을 전달하는 자연물임을 알 수 있다. ① '달'이 대상과의 단결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② '매화'가 화자의 심리적 방향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④, ⑤는 '달', '매화'와 관련 없는 진술이다.

[고전소설]

[41~43] <출전> 작자 미상, 「왕수제」

4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왕생이 부인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부인의 금기 제시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① 부인은 자신이 원래 용의 자손이어서 때때로 변신하여 기운을 펼쳐야 하는데 왕생을 따라온 뒤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 병에 걸렸다고 말했다. ② 부인은 왕생에게 자신의 병을 낫게 하려면 방을 출입할 때 종들을 먼저 보내 앞뒤에 들어와 달라고 한다. 따라서 부인은 병에 걸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③ 왕생은 급한 일이 있어 부인의 말을 잊고서 먼저 알려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가 부인이 변신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따라서 왕생이 금기를 파기한 것은 부주의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왕생은 금기를 파기함으로써 부인과 이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아들을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42. [출제의도] 고전 소설의 특징 파악하기

이 소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 용왕의 딸인 신적 존재와 인간이 인연을 맺고 있다. 그리고 변신을 한다든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등의 초경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3.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태도 파악하기

부인이 왕생의 감성을 자극하며 이해를 구하고 있지는 않다. ① 부인은 이별하게 된 것이 하늘이 정한 운명이고,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② 부인은 '군자의 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남편의 신의 없음을 지적하였다. ④ 부인은 왕생이 자신의 변신 모습을 목격한 후, 마음속으로 겁을 먹고 정이 이미 멀어졌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부인은 왕생의 속마음을 추측하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부인은 3년만 더 있었더라면 성스러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한스럽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하려 했던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극문학]

[44~45] <출전> 이강백, 「과수꾼」

44.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촌장'의 대사를 통해 무대 밖의 극중 공간인 마을에서 운반인이 이리 떼는 없다고 떠벌리고 있다는 것과 마을 사람들이 망무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인물의 독백이 나오지 않는다. ② 다양한 효과가 사용되지 않는다. ④ 관객에게 말을 걸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지 않는다. ⑤ 소품으로 편지가 활용되고 있지만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45. [출제의도] 인물의 관계 파악하기

'나'는 이리 떼의 실체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체'인 '다'에게 '협조자'가 될 수 없다. ①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떼는 없다는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② '다'의 입장에서 촌장은 이리 떼가 없다는 진실을 감추고 있으므로 반대자에 해당한다. ④ 촌장은 가상의 이리 떼를 내세워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⑤ 촌장의 입장에서 '성난 사람들'은 마을의 질서를 위협하는 반대자라고 할 수 있다.